

“송정동초와 함께 한 ‘35년 야구인생’ 즐거운 추억”

박태범 감독 정년 퇴임... 전국대회 6번·지역대회 56차례 우승컵 “야구보다 강조했던 건 ‘인성’... 유소년 야구로 인생 2막 열겠다”

박태범(60) 감독이 62번째 우승과 함께 송정동초에서 35년 여정을 마무리했다. 송정동초 야구부는 지난 24일 본래구장에서 끝난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부전승으로 대회를 시작한 송정동초는 대성초를 6-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서석초를 14-11로 제압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987년 송정동초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의 광주 지역 대회 56번째 우승, 전국대회 6차례 우승까지 더하면 62번째 우승 순간이었다. 오는 30일 정년 퇴임을 앞둔 박 감독의 마지막 우승이기도 했다. 우승 역사 만큼 많은 제자들이 프로 무대를 누비면서 박 감독을 빛나게 한다.



박태범 감독은 지난 5월 15일 키움과 한화의 경기가 열린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시구한 뒤, 제자 서건창으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 받았다. <키움 제공>

KBO 리그를 대표하는 ‘안방마님’ 양의지(NC)를 필두로 허경민(두산), 서건창(키움), 심우준·강민국(KT), 김성현(SSG) 등이 리그 내야를 지키고 있고, KIA 투수 박준표와 LG 투수 정찬현도 그의 제자다. KIA에서 코치 생활을 하는 최희섭, 이현근, 정성훈 역시 박 감독으로부터 야구를 배웠다. 45명의 제자가 프로 선수가 됐고, 유격수 출신 감독의 영향을 받아 특히 내야에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됐다. 박 감독은 “좋은 추억을 남기고 보람있게 퇴직하게 됐다. 흐뭇하다”며 “야구 중계할 때 우리 제자들 찾아본다. 승패는 신경 안 쓰고 제자들이 뛰는 모습만 지켜본다”고 웃었다. 송정동초 감독으로 보낸 마지막 시즌. 지난 5월 15일 감동적인 무대에도 섰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건창의 ‘스승’으로 키움과 한화전이 열린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시구하고 카네이션을 받았다. 박 감독은 “야구 35년 하면서 건창이가 스승의 날 마지막을 장식해준 것 같아서 고맙고 기뻐했다. 제자 키움 보람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첫 전국대회 우승과 미국 선전 야구를 경험한 순



송정동초가 지난 24일 본래구장에서 끝난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회는 송정동초 박태범 감독(맨 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의 마지막 대회였다. <광주시야구협회 제공>

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박 감독은 “1987년 야구부를 재창단하고 1991년에 전국대회 처음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난다. 최희섭과 이현근이 주축이 돼 우승했다”며 “2003년에 전국대회 우승하면서 리틀야구대회 초청받아서 미국에 다녀왔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칼립 켄 주니어도 만나고 볼티모어 경기장도 다녀오고 지도자로서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35년의 지도자 생활 동안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인성’과 ‘기본기’다. 박 감독은 “야구보다 인성이 먼저라고 가르쳤다. 인성을 가장 강조했다. 또 초등학교생이니까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프로 가서도 바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기초를 못 배우면 프로에서도 못 배운다”며 “기본기 없는 선수들은 처지게 된다.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 할 때는 귀찮고 어렵지만 선수들이 나중에 느낀다. 아마 프로 지도자들에게서 ‘송정동초 선수들은 기본기가 잘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지만 그의 야구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박 감독은 “마지막까지 아무 탈 없이 은퇴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 앞으로 유소년 야구 하면서 야구를 통해 받은 것 돌려주고 봉사하고 싶다. 또 나훈 회장님을 도와 광주시야구협회 일하면서 지역 야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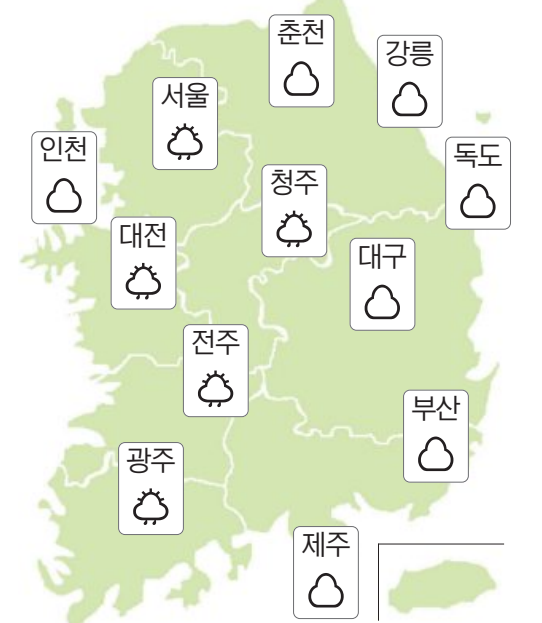
| | | | |
|-----|-------|-----|-------|
| 해돋이 | 05:20 | 달뜨기 | 23:03 |
| 해지기 | 19:51 | 달지기 | 08:44 |

소나기 피하세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 | | | | | |
|----|-----|-------|-----|-----|-------|
| 광주 | 소나기 | 21/30 | 보성 | 흐림 | 20/29 |
| 목포 | 흐림 | 21/28 | 순천 | 소나기 | 21/30 |
| 여수 | 흐림 | 22/27 | 영광 | 소나기 | 20/29 |
| 나주 | 소나기 | 20/30 | 진도 | 흐림 | 20/29 |
| 완도 | 흐림 | 21/28 | 전주 | 소나기 | 21/29 |
| 구례 | 소나기 | 20/30 | 군산 | 소나기 | 21/29 |
| 강진 | 흐림 | 21/30 | 남원 | 소나기 | 21/29 |
| 해남 | 소나기 | 20/30 | 흑산도 | 흐림 | 20/26 |
| 장성 | 소나기 | 20/29 | | | |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파고 (m) | 파고 (m) | 파고 (m) | 파고 (m) |
| 서해 남부 | 앞바다 | 0.5~1.0 | 0.5~1.0 | 0.5~1.0 |
| | 면바다(북) | 0.5~1.5 | 0.5~1.5 | 0.5~1.5 |
| | 면바다(남) | 0.5~1.5 | 0.5~1.5 | 0.5~1.5 |
| 남해 서부 | 앞바다 | 0.5~1.0 | 0.5~1.0 | 0.5~1.0 |
| | 면바다(서) | 0.5~1.5 | 0.5~1.5 | 0.5~1.5 |
| | 면바다(동) | 1.0~2.0 | 1.0~2.0 | 1.0~2.0 |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10:04 22:02 | 04:57 16:51 |
| 여수 | 05:38 17:29 | --:-- |

◇ 생활지수

| | | |
|-----|-------|------|
| 식중독 | 자외선 | 미세먼지 |
| 경고 | 매우 높음 | 보통 |

◇ 주간 날씨

| 29(화) | 30(수) | 7/1(목) |
|-------|-------|--------|
| ☁ | ☀ | ☁ |
| 21/29 | 21/30 | 21/31 |
| 2(금) | 3(토) | 4(일) |
| ☁ | ☁ | ☁ |
| 22/31 | 22/29 | 23/29 |

미국 스탠포드의과대 톱리 리아오 교수 전남대병원에 국제학술대회 참석비 기부

2010년부터 학회 발전 기여

전남대병원 심장센터가 주최했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미국의 세계적 심장학 교수가 학회 참석비를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으로 기부해 화제이다. 주인공은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톱리 리아오(Rongli Liao·사진) 교수.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 광주-보스턴 심장학 심포지엄에 참여해 심혈관질환의 최신 지견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던 리아오 교수는 이번 학회 참석비로 받은 1000달러(한화 110여만 원)를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국민건강증진과 심장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우심을 통해 전달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특히 리아오 교수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광주-보스턴국제심포지엄에 처음 참석한 이후 지금까지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순환기내과 교수)과 함께 코디네이터로 학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현재 스탠포드 아미로이드센터 책임자인 리아오 교수는 오랜기간 연구해 온 심혈관질환의 기초 및 중개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Circulation Research' 등에 발표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이형상씨, 대입전형 발전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동신대학교 직원 이형상(44·사진)씨가 대입전형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동신대 입학처에서 일하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와 공정성 제고를 통해 대입전형 업무에 기여했다. 교육부 정책에 맞춰 대학입학전형 계획을 수립·진행했으며 대입전형의 이해 및 전형개발에 참여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고교 진로·진학체제 프로그램 운영, 입학 박람회 및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 참여 등을 통해 대입 전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쌍둥이 자매 아드리아니(왼쪽)와 노라티라(오른쪽). 가운데는 쌍둥이로 알고 자란 아드리아니.

말레이시아 쌍둥이 자매 '19년만에 재회'

병원 실수로 아이 바뀌어

말레이시아의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실수로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19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27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20년 전 클라탄주 코타바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와 또 다른 여아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 본래 아드리아니와 노라티라가 쌍둥이 자매고, 아드리아니는 부모가 다르다. 하지만, 병원 측의 실수로 쌍둥이 자매의 부모는 아드리아니와 아드리아니를 집으로 데려가 이란성 쌍둥이인 줄 알고 키웠고, 노라티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컸다. /연합뉴스

그러다 2019년 3월 코타바루의 한 슈퍼마켓에서 아드리아니는 노라티라와 우연히 마주쳤다. 아드리아니는 “나랑 닮은 애가 있다는 말은 여러 차례 들었지만, 실제 마주친 그 순간 깜짝 놀라 할 말을 잃고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때도 신기하다며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지나쳤지만, 작년 8월 19일 아드리아니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일이라고 올리자 다른 친구들이 “노라티라의 생일이 8월 19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많은 논의 끝에 작년 9월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두 사람이 99.99%의 확률로 쌍둥이 자매라고 나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사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소송,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모집
-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당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방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 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씩만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